

‘염화미소법’ 논의 본격화 원장 선거 혁신특위 구성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서 결의... 위원장 초격 스님 선임

前 호계원장 법등 스님의 ‘염화미소법’ 등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종단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는 9월 8일 열린 제203회 임시회에서 ‘총무원장 선출제도 혁신 특별위원회(가칭) 구성의 건’을 다루고 위원회 구성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위원장에는 종헌종법특위 위원장 초격 스님이 선임됐다.

개정안 인준 이후 개정이 필요한 중점이었다.

이에 따라 원로의장은 단임하게 됐으며, 중앙종회의원 교구종회의원 겸직 조항이 삭제됐다. 또한 초심호계원장, 법규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소청심사위원장을 중앙종회에서 선출하게 됐으며, ‘중앙교원’을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으로 변경했다.

시법 개정을 통해 미등록 사설사당, 미등록 법인과 산하 사찰은 선원 입방과 승가고시 응시가 제한된다.

조계종 종합학교관리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동국대 이사 일면 스님의 후임 인사안이 부결됐다. 이날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관련 안건을 만장일치로 성안할 것을 의견을 제시했으나 만당 스님이 무기명 투표로 정할 것을 제안해 투표가 진행됐다.

대표 발의자 초격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제도와 관련해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선출제도를 혁신적으로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가 왔다”면서 “특위를 구성해 주시면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스님들은 특위 구성은 의장단에 위임해 종단 집행부, 본사 주지, 총회의원 등 21인으로 꾸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향후 특별위원회는 공청회 개최,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안 마련 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9월 8일 임시회 개원해 종헌 개정 후속 法 정비

승려법이 개정돼 미등록 사설사당의 재산상 관리인, 미등록법인의 임직원·소속사찰 관리인 및 관리의 도제는 사미(尼)계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교육법 개정으로 미등록 사설사당과 미등록 법인, 법인 산하 사찰의 관리인, 권리인, 임직원, 도제는 교육 제한을 받게 되며, 교육원장 자격이 ‘종사급’에서 ‘종사’로 개정됐다.

투표 결과 일면 스님 후임으로 복수 추천된 일면, 호산 스님은 찬성 30표 반대 41표로 부결됐다. 성타 스님의 후임으로 추천된 성타·명강 스님은 찬성 51표, 반대 19표, 무효 1표, 심경 스님의 후임 추천자인 수불·무관 스님은 찬성 63표, 반대 7표, 무효 1표, 미산 스님의 후임 추천자인 보광·지환 스님은 찬성 54표, 반대 16표, 무효 1표로 각각 가결됐다.

표교법 개정으로 표교원장의 자격을 ‘종사급’에서 ‘종사’로 개정됐으며, 표교원 회의의 구성을 종헌에 맞게 바꾸었다. 선원법, 승가고

이와 함께 중앙종회는 그간 논란이 됐던 사천 다술사 관할 교구로 범어사를 확정했다. 쟁계사와 범어사는 다술사의 관할 교구를 놓고 갈등을 벌여왔다.

이날 중앙종회는 71명 스님 가운데 쟁계사 4표, 범어사 49표, 기권 18표로 범어사로 교구가 확정됐다.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日정부, 이레도 위안부 부정할테나

지금도 위안부 자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일본 조동종 이치노헤 쇼고 스님이 9월 10일 군산 동국사에서 공개한 일본 위안소 사진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사진의 중국 산둥 칭따오 위안소는 변화기에 버젓이 설치됐으며 상관들이 병사들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칭따오에는 해군 위안소가 설치됐다는 기존 기록만 있지만, 이번 사진으로 육군 위안소도 설치됐음을 알 수 있다. <관련 기사 3면>

일본 극우 정치세력은 올해 종전 70년을 맞아 발표될 아베 신조 총리의 담화에서 “위안부는 없었다”는 사실을 삼입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 극우들은 위안소 사진을 이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사진의 중국 산둥 칭따오 위안소는 변화기에 버젓이 설치됐으며 상관들이 병사들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칭따오에는 해군 위안소가 설치됐다는 기존 기록만 있지만, 이번 사진으로 육군 위안소도 설치됐음을 알 수 있다. <관련 기사 3면>

국내 경매서도 범어사 칠성도 2점 발견

서울옥션 15일 경매에 출품
범어사, 환수 적극 추진

유실됐던 범어사 칠성도 2점이 국내 경매를 통해 발견됐다. 총 11점으로 구성된 범어사 칠성도 가운데 3점은 범어사의 노력으로 지난 7월 스위스 경매를 통해 돌아온바 있다.

9월 8일 범어사와 서울옥션에 따르면 오는 15일 제137회 서울옥션 미술품 경매에 범어사 칠성도 가운데 ‘나무최승감상여래’ (南無最勝吉祥如來)와 ‘나무금색성취여래’ (南無金色成就如來) 불화가 출품된다.

칠성도는 김민영 전 부산지축은 행장의 문화재 컬렉션 중 하나로 월 인석보, 정약용 필적 하피첩 등과 함께 경매로 나왔다. 불화의 추정가는 350만~550만원.

정상창 범어사 기획실장은 “경매 출품 소식을 듣고 범어사에서도 오



제137회 서울옥션 미술품 경매에 출품된 범어사 칠성도 중 하나. 총 2점이 출품됐다.

전에 긴급 회의를 열고 적극적으로 환수 활동을 추진 중이다”며 “주지 스님께서도 반색하시며 이전에 긍정적인 반응으로 검토 하셨다”고 전했다.

범어사 칠성도는 밀양 표충사에

서 선종(善宗)이라는 화승의 주도로 제작된 불화로 복두칠성을 비롯한 하늘의 여러 별을 형상화한 칠성신을 그린 작품을 뜻한다. 범어사 극락전에 봉안돼 있다. 한국사회 혼란기인 1950~1960년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출품된 범어사 칠성도는 11점의 작품 가운데 3,4 번이다. 불화 아래쪽 빨간색 화기(書記)에 시주자로 보이는 내용이 담겨 있어 스위스에서 환수한 칠성도와 같은 표기가 적혀 있다.

이에 앞서 범어사는 올해 치성광삼존도를 포함한 칠성도 3점을 스위스 경매를 통해 환수해 크게 주목을 받은바 있다. 50여년 만에 돌아온 칠성도는 7월 14일 귀환식을 거쳐 성보박물관에 임시 봉안했으며 ‘칠성각’을 새로 조성해 영구 봉안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은 9월 8일 서울 종로 조계사 대웅전에서 ‘대비원력의 발심과 실천을 위한 승가청규 고불식’을 개최했다. 사진=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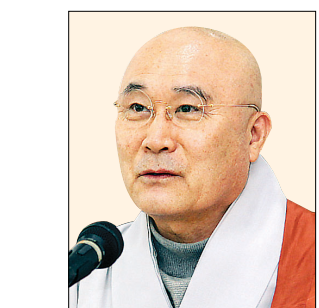
조계종 신임 호계원장 지원 스님 선출

중앙종회 8일 임시회서
자광 스님 7일 사직

조계종 사법기관의 최고 수장인 호계원장에 표교원장 지원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는 9월 8일 열린 제203회 임시회에서 후임 호계원장으로 지원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호계원장 선출 직후 지원 스님은 “부족한 점이 많은 소납을 종단 종헌 중법을 통한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호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종단의 종헌 중법



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스님은 1964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0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9대, 14대, 15대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 교

무국장, 표교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육지장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한편, 의현 스님 재심 논란으로 8월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 사퇴 의사를 밝혔던 자광 스님은 9월 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자광 스님은 입장문을 통해 “여러 사부대중이 개혁의 대의와 대중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 들이고, 이에 대한 부족함을 통감한다”면서 “지난 8월 대중공사에서 사부대중에게 9월 말까지 호계원장을 사직한다고 했으나 사법 공백이 없도록 이번 종회에 앞서 소임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사직의 변을 밝혔다.

신성민 기자

사찰 직거래 특가 판매

다량 주문시 할인

찬덕연등의 노하우를 보유한 사찰불사·불교용품 전문회사

연등 자동 승강 장치

인등시공

만 월 등

공 단 등

LED 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극락왕생 등

영가 등

보련기획
H·P 010-9446-1862
TEL 031) 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